

水營 野遊劇 臺本

本 臺本은 앞의 水營遺史에서 소개한 故 崔漢福씨의 遺稿를 정리하여 收錄한 것이다. 지금까지 東萊野遊劇 臺本 외에 水營 野遊劇 臺本이 알려진 것이 없었던 次에 이만한 정도의 것이라도 資料로 보존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水營 野遊劇本

水營野遊劇은 지금부터 約 2百年을 前後한 때로부터 草溪 田頭里로부터 傳來한 것으로 생각되며 平民大衆이 兩班의 酷待를 劇으로 諷刺한 것이다. 名稱은 夜遊 또는 野遊라고 하나 意味上으로 볼 때는 冶遊라고 하는 것도 무방하겠다. 冶場은 硬度를 자랑하는 強鐵이라도 일단 들어가면 溶解되어 所用의 用器로 바뀌어지기 때문이다. 腐敗 獨善的인 兩班을 有爲한 人間으로 改造하자는 諷刺劇인 冶遊라고 해도 意味上으로 좋을 것이다.

本劇을 편이상 前後編으로 나누어 그 進行과 臺詞를 記錄하면 다음과 같다.

前 編 (燃燈會 또는 農樂大會)

每年 陰曆 正月 보름날 밤에 행하는 夜間 놀음인데 먼저 넓은 廣場의 중앙에 큰 燈臺를 세워 大燈(龍燈·鳳燈·龜船·蓮花燈)을 달고 그 아래 새끼거물을 달아 이것을 새끼줄로써 자유롭게 높이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한다.

本場所와 좀 떨어진 곳에서 새끼 줄에 小燈을 매어달아 3. 4間 거리마다 적은 대(竹)나무 장대를 매어 노리꾼들이 치켜들고 先頭를 선 風樂隊를 따라 本場所로 행진해 들어온다. 行列 뒤에는 獅子 또는 車馬에 탄 首 兩班이 따라온다. 首 兩班이 탄 사자나 車馬는 下人 막뚝이가 이를 물고와야 한다. 兩班의 좌우에는 八仙女가 <지하자>를 부르며 응위하고 그 뒤에

는 軍樂隊가 습하며 行列한다. 그 다음에는 난봉가隊가 楊山道隊가 습하며 순서대로 뒤를 따른다. 이와 같은 一大假裝, 歌曲, 燃燈의 行列이 本場所에 들어서면 새끼에 매달아 들고 온 小燈은 前記한 大燈밑의 새끼 거물(蜘蛛網)에 건다. 그 다음 農樂隊를 선두하여 圓形으로 廣場을 돌면서 거창한 農樂會를 벌린다. 그리하여 農樂의 사이사이에 假裝, 喜劇, 舞踊, 風樂 등이 演出된다.

이러한 놀이를 밤 열시 경까지 계속하다가 五廣大가 한사람씩 場內로 진출해 나오고 樂隊는 一處에 列座한다. 이것으로 前編이 끝나는 셈인데 場所로 들어 온 때 부르는 行進曲(行進曲)은 歌詞가 다음과 같다.

길 군 악

1. 山아 山아 水營山아

눈비 맞고 白頭山아

(後念) 에—헤헤 에헤헤 에헤헤 에헤헤야

에헤헤 이여로 산이로구나

2. 兒童이 相見 不相識하고

笑問 客從 何處來오

後 編 (民謠風刺劇)

封建時代에 있어서 上과 下, 常班의 弊風이 없는 나라가 없으나 우리나라 李朝中葉 같이 尤甚한 例도 드물다. 常民은 같은 핏줄의 民族이면서도 支配階級인 兩班들에게 놀려 慘境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 兩班들의 腐敗와 惡習은 말할 수 없었으니 이러한 兩班들의 家庭的 醜態를 劇으로 諷刺한 것이 이 野遊劇이다.

먼저 野遊의 主役이 되는 五廣大의 人物·假面·衣服·行動을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首兩班 : 50代의 風骨이 좋은 사람으로서 官服에 紗帽 角帶하고 손에는 紗扇을 들고 맨 先頭에 선다.

次兩班 : 70代의 紅顏白髮로 道布을 입고 長烟竹을 물고, 竹杖을 짚으며

머리에 털모자를 쓴 無識한 白衣老人 다음에 선다.

셋째 兩班 : 30代의 青年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顔面에 백낙의 斑點이 있으며 손에 圓扇을 들고 次兩班 다음에 선다.

네째 兩班 : 紅장옷에 一層의 冠을 쓰고 卷扇을 손에 든 淸假面을 쓴 20代의 輕薄한 青年이다.

다섯째 兩班 : 마즈막 兩班으로 宗家집 道令님인 15. 6歲 가량의 少年이다. 차림새는 春香傳의 李道令과 같은 服色으로 伶俐한 少年의 風이다.

놀음의 進行

風樂을 울리며 五廣大가 한참 놀다가 首兩班이 「쉬-」하고 소리를 내어 場內를 정돈시킨 다음에 다음과 같이 才談을 시작한다.

「跽元狗吠堯는堯非不仁이로되 狗故吠非其主라, 少年堂上樂에 道令 前後 左右 벌려있고, 말 잡아 북 매우고, 쇠 잡아 長鼓 매고, 各姓까지 鞞채 치고, 雲峰山 징 치고, 遮日 깔고 덕석치고, 술 비비고 떡 걸으며(모두 反對로 표현) 鴻門宴 높은 잔치, 항장영 칼춤 출 제 이몸이 한가하여 功成身邊後에 臨泉에 草堂짓고 萬卷 討書 사이에 놓고, 金樽에 술 빚어 絶世佳人 곁에 두고, 碧梧桐 거문고 줄 골라 壁上에 걸어두고 南風詩를 味答하였다. 이 제기랄 붓고 경각대명갈 녀석을 저희라사 兩班인체로」

首兩班의 才談 후에 응박깁깁을 連唱하며 밤이 늦도록 風樂에 맞추어 한참 놀다가 首兩班이 또 쉬-하며 場內를 정리한 다음 「우리 兩班의 집 子息으로 科擧 때가 臨迫하였으니 科擧 갈 준비를 하자」고 하며 글짓기 練習을 할 것을 提議한다. 이에 대하여 次兩班이 「應」字 셋째 兩班이 「簿」字를 韻字로 내어 건다. 그리하여 五廣大는 「응·박」「응·박」하고 連呼하며 風樂에 맞추어 한바탕 놀이를 한다. 한참 놀이가 진행되고 나면 首兩班이 또 「쉬-」하여 場內를 정리한 다음에 首兩班이 「科擧를 가려면 옛날 先祖大監부터 下人 막뚜기를 다리고 갔다」고 선언하고 五廣大가 合唱으로 막뚜기를 부른다. 그래 놓고 首兩班부터 詠詩 또는 詩唱을 하고

그 뒤 各 兩班이 차례로 短歌를 부르다가 뒤에는 各者가 合作했다면서 白鷗打승을 合唱한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次兩班이 「막뚜기를 불러도 消息이 없으니 再唱을 하자」고 提議하여 異論이 紛紛하다가 결국 막뚜기를 다같이 불러낸다.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앞에 글 짓기 할 때 作詩했다고 하면서 「오독독이打승을 다 같이 合唱한다. 한참 동안 風樂에 맞추어 오독독이打승을 合唱하다, 또 首兩班이 場內를 정리시키고 다음이 進行된다.

셋째 兩班 「막뚜기란 놈은 제 義父 애비 때부터 교만한 놈이라 한 두번 불러서는 않나오는 놈이니 한번 더 불러보자」

넷째 兩班 「그 놈을 불렀다가 兩班 체면에 그놈에게 逢辱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또 異論이 紛紛하다가 결국 宗家の 責任上 首兩班이 獨擔키로 하여 막뚜기를 부른다.

이때 險惡한 假面에 마고자를 입고 명주 수건으로 한편 다리를 질끈 잘라맨 막뚜기가 馬鞭을 등짐하고 앞으로 나타난다.

막뚜기 「이제야 다시 보니 洞庭은 가을하고 千峰萬壑은 구름 위에 솟아있고, 楊柳千萬絲는 江流春風 자랑하고, 水上浮雲은 池塘에 泛泛, 秋風江上 살얼음은 눈(雪) 위에 잠깐이요. 대주먹이 卞土祭는 頃劑에 하박인데 別有天地 非人間에 小人 막뚜기 問安 드리오」

首兩班 「이놈. 銀쟁반 선수박은 호로이 호로이 뱅뱅이요. 대주먹이 卞土祭는 경각에 타맹이라 너같은 깨똥상놈, 다같은 玉堂兩班, 너놈 한 놈 때려 죽이면 귀양 밖에 더 가겠느냐」

막뚜기 「귀양을 가면 어데로 간단 말씀이요」

首兩班 「이놈, 威鏡道과 치치다리 吉川·明川·三水·甲山·富령·靑嶺교 사리밭 밖에 더 가겠느냐」

여기서 座中은 「吉州·吉州」를 連唱하며 한참동안 風樂에 맞추어 논다. 그러다가 首兩班이 또 場內를 정리하고 나서

首兩班 「이놈 막뚜가 저기 선 道승님에게 問安 드러라」

막뚜기 「아니, 드렸소이다」

首兩班 「저기 선 道令님이 훌룡하고 깨끗하며 물진 제비갈고 깨어진 파구로다. 앉으면 荀藥갈고 서면 牧丹이라 玉顏을 상대하면 弱水中之蓮花로다. 모질기는 콩사래기요 毒하기는 보리까시래기 같은 지라 道令님께 빨리 問安을 드러라」

首兩班의 이러한 獨促이 있고 난 뒤

막뚜기 「저기 선 道令님이 청보道令님인지, 깨보道令님인지, 三間草堂 열새 맡은 道令님인지, 선달 그믐날 저녁에 계상관 밑에서 낳은道令님인지 道令님 問安이요」

首兩班 「이놈 막뚜기야, 科擧 때는 臨迫한데 나는 나대로 가고 너는 너대로 가야 옳단 말이냐」

막뚜기 「왕 그리오릿가, 書房님 찾으려고 아니 간 데 없습니다」

首兩班 「이놈, 어데 어데를 갔단 말이냐」

막뚜기 「書房님이 少年時節에 豪俠하신 거라 八仙女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양公主, 나양公主, 진채봉, 가춘운, 벽능과, 심오연이, 적경호, 계섬월, 이집을 두루시 다 찾아도 書房님은 커녕 아무게 아들도 없더이다」

各 兩班이 막뚜기의 이 소리를 듣고 모두 분개하며 욕설로 막뚜기를 호통한다. 次兩班이 다시 막뚜기에게 친절하게 물어도 막뚜기는 「새새히 찾았습니다. 고 대답한다. 次兩班이 막뚜기가 샷샷치 찾았다고 하는 것을 首兩班에게 보고하면 首兩班은 「그러면 그렇지」 하고 흡속해 한다. 그리고 다시 다음과 같이 對話가 진행된다.

首兩班 「이놈, 그만 찾고 말았단 말이냐」

막뚜기 「長安 鍾路를 두루 다 찾았습니다」

首兩班 「그래서?」

막뚜기 「일안감, 이목골, 삼청동, 사계골, 오궁토, 육조앞, 칠간음, 팔각

제, 구리게, 십자골 두루 찾아도 書房님은 커녕 아무네 아들 놈도 없읍
디다」

여기서 各 兩班이 異口同聲으로 말뚝이를 詰責해도 말뚝이는 거저 찾아보
았다고만 한다.

首兩班「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말뚝이「八道江山을 다 찾았읍니다」

首兩班「그래서?」

말뚝이「一元山, 二江景, 三푸주, 四馬山, 五三浪, 六勿禁, 七南
倉, 八釜山을 두루 다 찾아도 아무네 아들놈도 없읍니다.

여기서 各 兩班들이 또 말뚝이에게 가진 辱說을 한다.

首兩班「그래 이놈, 그만만 찾고 말았던 말이나?」

말뚝이「書房님宅을 찾았읍니다」

首兩班「그래서?」

말뚝이「宅을 썩 들어가니 종년 세탁가고 머슴 놀러가고, 집안이 교묘한
데, 大夫人 마누라가 오르랍디」

여기서 各 兩班은「이놈 올라가다니, 이놈 오르다니, 이놈 손을 잡다니
이놈 마루에 올라가다니」하면서 각각 과장하면서 妄動을 벌려 喜劇을 연
출 한다. 그러다가

말뚝이一次兩班을 보고—

「축담을 오르랍디다」

首兩班「그래서?」—당황한 태도로—

말뚝이「房門을 썩 열고보니 靑花塗壁에 黃綾花 띄 띄고, 黃綾花 塗壁에
靑綾花 띄를 띄어 펴 새끼 그린 房에 매 새끼 날아들고, 매 새끼 그린
房에 매 새끼 날아들 제, 한 壁을 바라보니 漢宗室 劉皇叔이 臥龍江上
毘雲中에 諸葛先生 보러가려 童子 불러 물을 적에 益德은 손을 잡고 자
는 잠을 깨우라고 고리눈을 부릅뜨고, 雲長은 만류하며 동정을 보는 景

을 역력히 그려 있고, 또 한 벽 바라보니 商山四皓 옛 老人이 바둑관
 앞에 놓고, 한 老人 黑棋를 들고 한 老人 白棋 들고 또한 老人 혼수구
 경하려 머리 위로 넘어보며 또한 老人 童子를 불러 치다리며, 白羽扇
 손에 들고 松林에 빗겨 누어 閒暇히 조는 양을 역력히 그려 있고, 또한
 壁 바라보니 湯님군 犠牲되어 剪瓜斷髮 하옵시고 待雨坊 비를 빌다. 곤
 룡포 적셔 입고, 龍宮으로 가는 景을 역력히 그려 있고, 또한 壁을 바
 라보니 東海上 姜太公이 前八十窮因하여 갈 샷샷 숙여 쓰고 끈은 낚시
 던져놓고, 渭水濱에 앉은 景을 역력히 그려 있고, 東窓을 열고 보니 배
 마침 三春이라 花發風자로 불러 萬花방창 꽃이 필 제, 退妓산등 舜임군
 이 팔은 팔개 다려시고 五絃琴 南風詩에 헤오민지 온혜하던 君王富貴
 牧丹花며, 首陽山 월운 중에 현시현 몸이 되어 조갈게라 號승하던 殉國
 忠臣 向日花며 審陽處士 陶淵明이 五斗錄을 하직하고 田園에 돌아 들어
 樂琴書以消憂하던 원일품도 菊花 꽃과 六國風塵 商山四皓, 삼진갈포 몸
 에 입고 천여장 벗겨놓고 石榻에 잠이드니 老人 방불 박꽃이며 20歲 登
 將軍이 百壽珍人 잠간 만나 漢나라를 中興하고 承相인수 받았으니 靑春
 少年 石竹花梅雪圖 같은 妙한 一色王樓紗窓 벗겨앉아 黃昏白馬 野遊 중
 에 秋渡들이 送情하니 香氣 좋은 海棠花며 仙風道骨 謝安石이 絕代佳人
 손을 잡고 사직으로 전도하며 東山 위에 온라노니 風流郎은 紅桃 白桃
 꽃 구경도 좋거니와 遠近山川 木새들이 景을 좇아 날아든다. 芙蓉堂 雲
 霧中에 五彩가 영롱하니 그림 속의 孔雀이며 楊柳에 봄이 드니 고교호
 음 노래하던 봄 빛 좇는 꾀꼬리며 七月七夕 銀河水 다리 놓은 烏鶻이며
 일상 飛去各飛去하니 전불상임 원암새며 상임원 글 전하던 遠浦歸業 기
 러기며 범범 中流 止함이 없이 相親相近 쌍오리며 말 잘하는 앵무새며
 춤 잘 추는 鶴 두루미 鏡水無風 也自波에 목욕하던 白鷗들이 限없이 날
 아들 제, 求景을 못다하고 媿東婦西 자리 잡아 꽃방석에 앉은 後에 大
 夫人 마누라가 벽장 문 열어놓고 온갖 술 나오는데 목길다 황새 瓶과 紅
 연자 산호 瓶과 응굴둥굴 수박 瓶과 高麗磁器 楊柳 瓶에 술치장 붙치시면
 靑산호 위국가에 不老長生 千日酒며 九月九日 龍山 欽에 띄워놓은 菊花

酒며 山中雲山 松林酒며 萬吉성인 百花酒며 錄渡酒 過夏酒를 잡도 덩도
 아니하게 마치맛게 데워 놓고 東萊 전복 小전복과 蔚山 전복 小전복을
 銀長刀 더는 칼로 孟嘗君의 눈습채로 어석빚석 빚어내어 統營소반, 安
 城유기 보기 좋게 차려놓고 노자앵무盃에 小人 막뚜기도 한잔 먹고 大
 夫人 마누라도 春情이오. 小人 말뚜기도 靑春이라 兩靑春 마주쳐서 東
 房花燭이 밝더이다」

이때 次兩班이 앞으로 나와 場內를 유달리 정돈시킨다. 그리고 首兩班
 을 제외한 四廣大(나머지 兩班) 만이 서로 相論한 뒤에 「亡했네, 亡했네
 兩班의 집이 亡했네」를 합창으로 連唱하며 놀다가 해산 打令과 갈가부打
 令을 부른다. 이 때 首兩班의 태도는 失望的이며 아주 쓸쓸한 表情을 나
 타내어야 한다.

해산打令

1. 亡했구나 亡했구나 兩班의 집이 亡했구나
 後念 얼시구 절시구 지하자 절시구
2. 앞 山 위에 黑雲이 걸고 靑天白日이 밝아온다.
3. 참깨 들깨 노는데는 자주까리는 못놀소나.

해산타령이 끝나면 次兩班이 場內를 정리한 후에 「우리 모두 農場으로
 漁場으로 工場으로 學場으로 돌아 갑시다」고 提議하여 長鼓에만 맞추어
 갈가부 打令을 부르다가 風樂을 울리며 罷劇한다.

갈가부打令

1. 가리 갈가나부다 가리 갈가나부다.
 임홀로 따라와서 임과 두리서 나도 갈가나부다.
2. 奴婢 권식을 다 永離別하고
 임홀로 따라와서 임과 둘이서 나도 갈가나부다
3. 門前玉畚을 다 永放賣하여 임 홀로 따라와서 임과 둘이서 나도 갈가
 나 부다.

1. 白鷗打令

1. 白鷗야 훨훨 나지를 마라

내 너 잡어러 아니왔다.

後念 : 南門을 열고 바라를 보니

鷄鳴山川이 밝아온다.

2. 歲月아 봄절아 오고 가지를 마라

事業의 青年이 다 늙어낸다.

後念 : 아사라 아사라 죽고 京州를

가니 鷄鳴山川이 밝아온다.

2. 오독독이 打令

1. 오독독 옥옥이 춘양추추 월위월이

달도 밝고 明朗하라 풍구다 당실 풍구다 당실

달이 밝단이? 보름달이던가 봐.

너—몰아다 月明星稀에 鳥鵲이 南飛로다.

後念 : 용타 용타 용타 용타 지랄로 혈신 연자바리고

마—아 어허허 허허 헐레로구나.

2. 저 놈의 兩班 舉動보소 저 놈의 兩班 舉動보소

갓을 벗어 등짐하고 이리로 비털 저리로 비털— 비털 비털

비털 비털이라니? 술을 먹 먹었던가봐

너—몰아라 醉也臥空山타가 更問杏花村이다.

3. 首陽山 깊은 골로 가만히 쭉쭉 내려가서

버드나무 잎사귀를 한옥큼 주루룩 흘터다가

깊고 깊고 깊은 물에 여기도 풍덩 저기도 풍덩—

풍덩 풍덩이라니? 웅덩에, 독을 던지던가봐

너 몰라라 楊柳青青 渡水人로구나.

이상에서 본 것 외에도 廣大劇, 비비새劇, 영노劇 등의 小劇이 있으나
略한다.